



신생아 Surfactant 보충요법 日本서 활기

重症의 호흡부전증에 걸려있는 未熟兒에게 Surfactant보충요법을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다는 研究報告가 최근 「폐의 발육과 호흡기질환」이란 주제로 열린 제30회 일본흉부질환학회에서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Surfactant는 일종의 界面活性劑로 肺를 팽창시킨 상태로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 물질이 없으면 폐포가 쪼그라들어 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

未熟兒의 경우는 폐의 발달이 未熟하여 태어나는 즉시 人工呼吸器를 부착시키는데, 이럴 경우 重症의 신생아호흡곤란증(RDS)이 발생될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었다.

Surfactant보충요법은 1980년 이와테醫大 후지하라(藤原)교수가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實用化에 성공한 치료법이다. 이후 이 치료법의 安全性과 有效性을 확립하기 위해 日本全國 20개의 病院에서 공동으로 비교검사시험을 실시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2년전부터는 日本全國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치료법과 관련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Surfactant를 사용하

는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번 학회의 발표에서 후지하라 教授는 「Surfactant가 없는 것이 확인된 未熟兒의 경우 人工呼吸器에 부착된 기관내 튜브를 통해 이 약제를 주입하면 수분후에는 폐포가 부풀어 거의 정상적인 상태의 폐로 된다. 특히 생후 평균 18분 이내에 실시한 조기투여의 경우에는 RDS를 1백% 예방 가능했다」라고 밝혀 이 치료법에 있어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지하라 教授는 또 백혈병으로 인해 carinii 肺炎에 걸려있는 2세 및 4세인 어린이에게 이 치료법을 써서 완치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성인호흡기질환에 대해 이 療法을 사용해 보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Surfactant는 소로부터 빼낸 천연 Surfactant에 合成地質을 가하여 알러지의 原因이 되는 蛋白質을 제거한 것인데, 그 성분이 해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전공학기술을 사용하거나 직접합성을 통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 치료법에 대한 시험연구가 일부 大學病院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때문에 최근 日本의 동향은 우리나라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리음식이 콜레스테롤值 줄여준다.

보리를 많이 먹는 사람은 밀가루를 많이 먹는 사람에 비해 콜레스테롤值가 훨씬 낮다고 미국 몬타나 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밝혔다.

이 연구팀은 두그룹의 남성들에게 각각 보리가 많이든 음식과 밀가루가 많이든 음식을 먹게한 뒤 이들의 혈액을 비교한 결과 보리섭취그룹은 4주만에 콜레스테롤치가 15%까지 낮아진 반면 밀섭취 그룹은 콜레스테롤치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리와 보리로 만든 시리얼이나 머핀, 빵을 먹은 두 그룹을 조사한 결과 두그룹 모두 6주만에 콜레스테롤치가 14%나 내려갔다는 것.

이 조사를 실시한 로즈메리 뉴먼 연구원은 보리와 귀리에는 콜레스테롤值를 높이는 지방의 장내흡수를 차단하는 섬유소인 베타 글루칸이 상당량 함유된 반면 밀에는 이같은 성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베타 글루칸은 이밖에도 콜레스테롤 생성과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즙산과 결합,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體外授精으로 遺傳病예방

영국 Hammer Smith병원의 A.H. 헨디사이드박사는 남성특유의 유전병을 피하기 위해 인공수정한 사람의 胚를

着床前에 검사하여 女性으로 확인된 胚만을 모체에 돌려 넣는 방식을 통해 2쌍의 부부에게 임신을 성공 시켰다고 최근의 「Nature」紙에 발표했다.

이 연구팀은 부신皮質 dystrophy 및 X 염색체에 관련되어 精神박약증이 유전될 우려가 있었던 2쌍의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을 한 여러개의 胚를 대상으로 6~8세포기에 한개의 세포를 채취 검사하여 Y염색체 특유의 反復配列인 DNA증폭이 없는 여성의 胚를 모체에도로 넣어 두여성에게 임신을 성공시켰다.

남성에게만 전형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X염색체관련 열성 질환은 모두 2백여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는 착상 후에 진단했기 때문에 인공유산할 수 밖에 없었다.

돼지心臟 사람에게 移植시도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移植시키는 새로운 移植術이 시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스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수술은 폴란드 실레지아大 심장병센터의 즈비크네페레리카박사팀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돼지로부터 적출된 심장이 34세된 남자에게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 환자는 수술한지 12시간만에 사망하기 했으나 이번의 수술은 動物의 심장이 사람에게 이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